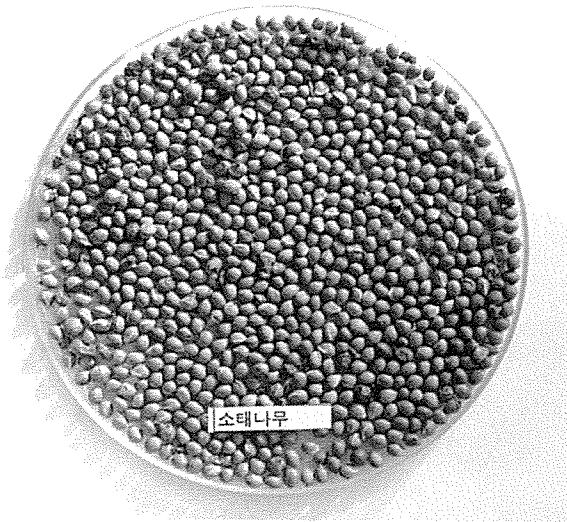


소태나무

(학명 : *Picrasma quassioides*, 소태나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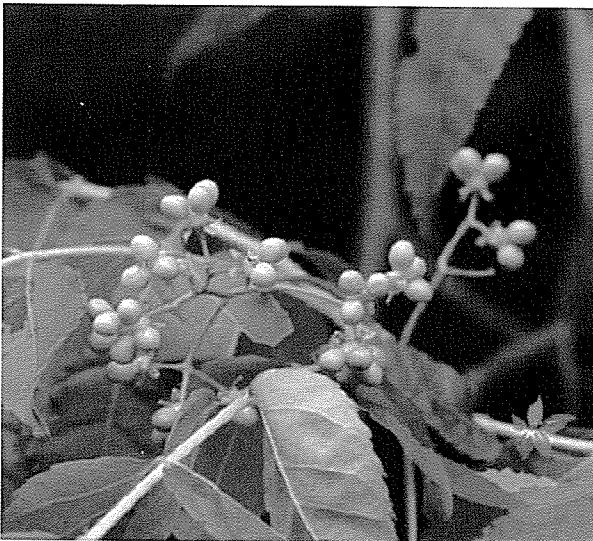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소태나무

소태나무 종자



소태나무의 열매

“소태같이 쓰다”는 표현은 자주 듣지만 소태나무의 쓴 맛을 맛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은 수목학을 강의한지 20년쯤 되어, 우리나라에 있는 수목은 대강 구별할 수 있지만, 처음 수목학 강의를 시작할 때는 ‘공부해가며 강의하는’ 수준이었다. 밀천은 대학 1학년 때 배운 수목학 실력과, 10년간 국립산림과 학원에 근무하며 주로 육종 대상이 되는 수종들 뿐이라고 할 수 있었다.

3학년을 데리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연습림에 실습을 나갔을 때, 어느 학생이 내가 처음 보는 나무 가지를 잘라와 ‘무슨 나무냐?’고 물었다.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른다’고 대답하기도 어려웠다. 시간을 끌며, 도감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잎을 씹어 보았다. 그 순간 그 이름이 떠올랐다. 얼마나 쓰든지! 그 학생에게도 잎을 씹어보라고 하고, 이름을 물었다. 그 학생도 얼굴을 찡그리며 ‘소태나무’라고 대답하였다. 그 학생도 소태나무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소태나무는 산야에 자라거나 인가부근에 식재하고 있는 낙엽소교목으로 높이 10m까지 자라며, 일본, 중국, 대만, 히말라야 등에도 분포한다. 수피는 오랫동안 갈라지지 않고 소지에는 황색 피목이 산재한다. 동아에는 인편이 없고 적갈색의 털이 밀생한다.

꽃은 자웅이주로 새가지의 엽액에서 산방화서가 나오며 황백색으로 5-6월에 핀다. 열매는 핵과로 9월에 녹남색으로 익는다. 번식은 종자 채취후 과육을 제거한 후 모래와 섞어 저장하였다가 봄에 뿌린다.

잎은 호생하며 우상복엽인데 9-15매의 소엽으로 되어 있다. 소엽은 좁은 난형으로 길이 4-8cm로서 점첨두이고, 원저 또는 의저이며 파상의 거치가 있다.

▼ 커다란 정자나무로 사랑 받고 있는 소태나무

